

로봇 주요 뉴스(02/03)

[국내]

- 삼성리서치아메리카, 로봇 인재 채용 활발
- 티로보틱스, '즉시 투입' 휴머노이드 로봇 내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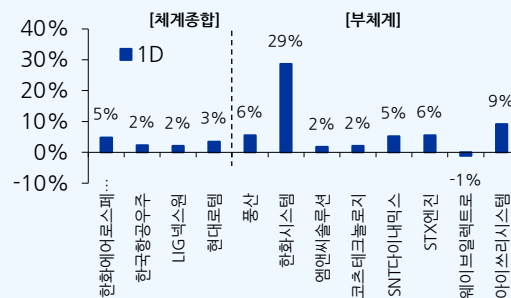
[해외]

- 화낙, 로봇 제어 SW 개방. 제휴와 협업의 길로 나서
- 춘천 다가오면서 중국 로봇 렌탈 문의 폭증
- 애지봇, 휴머노이드200여대를 동원한 갈라쇼 계획

Zoom-In

[일본 로봇의 쇄국 정책 폐지]

- 폐쇄성을 추구하던 일본 로봇 기업들이 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음. 화낙도 최근 엔비디아와 AI 협업을 본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화를 결단. 외부 협업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 뒤쳐진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방산 주요 뉴스(02/03)

[국내]

- 한화에어로, 캐나다에 화력·기동 통합 솔루션 제안
- 한-폴란드 첫 안보전략협의회 "방산 협력 강화"
- 한화시스템, 회사채 수요예측서 1.4兆 확보
- 한화에어로 등 韓방산기업들, 베트남서 방문 설명회
-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 에어버스·보잉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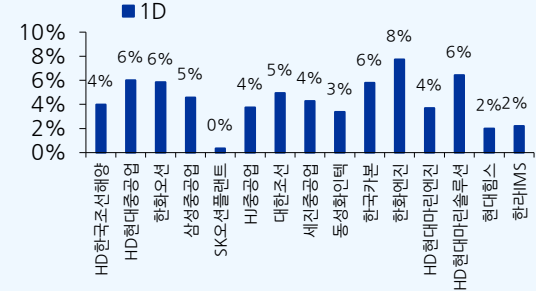
[해외]

- 루마니아, 단거리 이어 중거리 방공시스템 추가 도입
- 아르테미스 2호 발사 한달 가량 미뤄질 듯
- 스페이스X, xAI 인수·'우주 데이터센터' 본격 추진

Zoom-In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 우주 기대감 속 연내 예정된 1.4조원 규모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 집중. 군은 EO/IR 4기, SAR 40기를 활용해 북한 감시 주기를 20~30분으로 단축할 계획. 현재 한화시스템(H&M)과 한국항공우주(KARI) 경쟁 중. 올해 검증 위성 발사하고 28년 본격 발사 계획.



조선 주요 뉴스(02/03)

[국내]

- 한화, 韓 잠수함으로 대평양 건너 캐나다까지 간다
- HD한국조선해양 작년 136척 중 70.6% 조기 인도
- 현대중, 로이드와 4만 CBM급 LNG선 공동개발 추진
- 한화오션, M&A 인력 채용. 해외 추가 인수 가능성
- 현대·삼성중공업, 5조원 리비아 해양플래트 수주전

[해외]

- 우드사이드, LNGC 선주 및 조선소 선정 마무리 단계

Zoom-In

[우드사이드 LNGC 발주 기대감]

- 호주 우드사이드가 LNGC 신조 건조를 위한 선주 및 조선소 선정 작업 마무리 단계에 진입. 이번엔 LNG 수출 선사를 7개사로 좁힘. 최종 선정 이후 LNGC 발주 예정. 총 발주 예정 척수는 6~8척에 옵션 4척 (174k t) 2020년경. 납기는 29~30년보다 빠른 납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당사는 자료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해당공공에 대해서유가증진발행에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본지표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공공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지표를 기판지부터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식분석당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공공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개편된 내용들은 조식분석당 당사 본의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무리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의 재직료로서도 사용된 바에 대해 없습니다. 동 자료는 당의 의도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량할당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할 자료 및 정보로서 얻었거나, 조사한 것일뿐 아니라 유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의 주주의 권익에 대한 책임 전산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